함께충남 대한민국의 힘

1990년 12월 15일 창간 안내 041-635-2484

충남도정

www.chungnam.go.kr 충청남도청

제1060호
2026년 2월 25일 ~ 2026년 3월 4일

문자 음성변환 바코드 '보이스아이'

"작은 불씨가 재난이 된다" 봄철 산불 비상

겨울 가뭄에 메마른 충남
서산·예산 등 산불 잇따라
3년 전 홍성 산불 잊지 말아야



2월 21일 오후 2시 충남 예산군 대술면에서 발생한 화재가 강풍을 타고 인근 산림으로 확산한 산불은 다음날 오후 5시께 완전히 진화했다. 이번 산불로 주민 51명이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으며 45ha의 산림이 소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예산군

지난 주말 충남 서산과 예산 등 4곳에서 잇따라 산불이 발생하면서 도내 전역에 '봄철 산불 비상'이 걸렸다. 21일과 22일까지 이어진 서산과 예산 산불로 축구경기장 70개 크기인 임야 52.5ha가 피해를 봤다.

아산과 논산의 산불은 신속한 출동과 조기 진화됐지만, 강풍과 건조한 날씨가 겹치면 언제든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겨울 충남지역은 눈과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으면서 산림과 농경지는 바짝 말라 있다. 특히 봄철은 낮 기온 상승과 강풍이 겹쳐 작은 불씨도 순식간에 산 전체로 번질 수 있는 시기다.

산림 당국은 "지표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바람이 초속 5m 이상만 불어도 불길 확산 속도는 급격히 빨라진다"며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대형 산불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화마 상처 치유 수십년 걸려

충남 도민에게 산불은 낯선 재난이 아니다. 3년 전인 2023년 4월, 홍성군 일대를 휩쓴 대형 산불은 1천337ha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고 주민 삶터를 위협했다. 당시 강풍을 타고 번진 불길은 순식간에 마을 인근까지 확산됐고, 주민 대피와 시설 피해가 이어졌다.

산불은 긴 후유증을 남겨 소실된 산림은 단기간에 복원되지 않으며, 산사태 위험과 생태계 파괴, 지역 관광·농업 피해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진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겪는 심리적 불안과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산림 복원에는 수십 년이 걸린다. 한 번의 방심이 세대를 넘어 이어질 상처로 남는 셈이다.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 원인

봄철 산불의 상당수는 인재(人災)다.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입산 중 흡연, 캠핑 화기 관리 소홀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영농 준비가 시작되는 3~4월은 산불 발생이 집중되는 시기다.

충남도와 각 시군은 산불감시원 배치 확대, 드론 순찰, 취약지역 입산 통제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경각심이 가장 강력한 방화선이다.

산림 전문가들은 "산불은 진화보다 예방이 훨씬 중요하다"며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소각 행위를 절대 삼가고, 산 인접 지역에서는 화기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산불의 주요 원인이 개인 부주의라는 점을 고려해 담배꽁초 투기, 불법 소각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3~4월 집중…경계해야

올봄은 예년보다 위험하다. 겨울철 메마른 토양과 낙엽층이 극도로 건조한 상태다. 여기에 봄철 강풍까지 겹치면 대형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입산시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고 취사 또는 흡연 등 불씨를 만들 행동이나,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소각 금지 등을 실천해야 하며 연기나 불씨 발견시 즉시 119 신고 등 산불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산불은 자연재해이면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재난이다. 작은 불씨 하나가 충남의 산과 마을,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지 않도록 도민 모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도정신문팀

논산 딸기 스마트팜단지 입주자 모집

5월부터 입주자 온실 설치
3월 청년농 3명 추가 선발

충남 논산에 조성 중인 대규모 수출전문 논산 딸기산업 스마트팜 복합단지(논산 딸기 복합단지) 입주자를 모집한다.

도에 따르면 오는 2028년 논산시 부적면 일원에 논산 딸기 복합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논산 딸기 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청년농은 안정적인 스마트팜 경영과 해외 판로 기회를 지원받게 되는데, 입주 청년농 등은 보조·융자금과 자부담으로 온실을 설치해야 한다. 전체 구획은 총 24개이다.

1단계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7.4ha는 15개 구획으로 나눠 올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조성 추진 중이며, 5월부터 입주자 온실 설치가 시작된다.

15개 구획 가운데 12개 구획은 이미 입주 청년농 12명(논산 9명, 타지역 3명)이 선발됐고, 올 3월 잔여구역 3개 구획에 입주할 청년농 3명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각 구획당 면적은 3300~4950㎡ 규모다.

2단계 스마트 원예단지는 6.7ha, 9개 구획 규모로,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다. 올 하반기 입주자(청년농 8명, 선도(앵커)기업 1곳)를 모집할 예정이다.

입주 관련 자세한 내용은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스마트농업과 041-635-4042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출시 예정

3년 이상 투자 시 소득공제
한국산업은행 누리집서 신청

국민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올 2~3분기 중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인공지능(AI), 반도체, 미래차,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국민이 직접 투자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출시된다.

3년 이상 투자할 경우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3분기 중으로 은행, 증권사 등을 통해 판매 예정이며, 구체적인 참여 절차 및 판매 일정 등은 국민성장펀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신청은 한국산업은행(국민성장펀드 사무국, 02-787-5002) 누리집 내 국민성장펀드 전용 페이지(https://ngf.kdb.co.kr)를 통해 연중 수시로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미래산업과 041-635-3951



민선8기충남도정

도정 비전

함께충남 대한민국의 힘

도정 현안과제를 강력한 추진력으로 신속히 해결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선도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도정목표

-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
-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 가치있고 품격있는 삶
- 우리 뜻이 통하는 충남

지면안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2면
태안원예치유박람회 4면
지역작가 발자취 8면
다른그림찾기 10면
충남청년농부가 간다 12면

www.chungnam.go.kr 충청남도청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 올해 종료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지원도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 조기폐차와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사업이 올해 종료된다.

올해 종료되는 지원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대상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건설기계 대상 신형 엔진교체 지원 ▲어린이 통학차량 대상 LPG차 신차구매 지원사업 등이다.

5등급 조기폐차의 경우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최대 300만-3000만원, 배출가스저감장치(DPF)는 부착 비용의 90% 지원한다.

건설기계 엔진교체의 경우 2004년 이전 기준으로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 등을 대상으로 장치 규격에 따라 전액 지원한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경유차 폐차 후 LPG(15인승 미만) 신차 구입 시 300만원 정액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차량 등록지 관할 시군 환경부서 문의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3월부터는 해당 누리집 내 '내차 종합 정보' 화면에서 내차 정보를 입력하면 배출가스 등급과 조기폐차 지원금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과 041-635-4424



충남도정
https://blog.naver.com/chungnamdojung
발행인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창간 1990년 12월 15일
주소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인 공보담당관
발행주기 매월 5. 15. 25일
안내 041-635-2484

홍종완 신임 행정부지사 부임

천안 출신 1998년 공직 입문



제39대 충남도 행정부지사로 홍종완〈사진〉 전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이 임명됐다.

도에 따르면 2월 20일 홍 신임 부지사가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천안 출신인 홍 부지사는 천안 북일고와 서강대학교를 졸업하고, 1998년 제3회 지방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홍 부지사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서천군에서 근무한 뒤, 2002년 1월부터 4년 8개월 간 도에서 재직하며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개최 등 도정 주요 현안을 수행했다.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사회재난대응정책과장, 민방위심의관, 사회재난실장 등을 역임했다.

홍 신임 부지사는 이날 별도의 취임식 없이 첫 일정으로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현장을 방문해 행사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인사담당관 041-635-3522

구제역 백신 접종 기간 앞당겨

소·염소 56만 마리 대상

충남도는 2월 20일 경기도 고양시 구제역 발생에 따라 '2026년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시행 기간을 기존 3월에서 앞당겨 2월 20일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밝혔다.

충남은 2016년 구제역 발생 이후 10년 동안 발생 사례가 없었지만, 지난해 전남에 이어 올해 인천과 경기 지역 소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접종 대상은 도내 소·염소 농가 1만 3647호에서 사육 중인 56만여 마리다.

50마리 미만 소 사육 농가와 300마리 미만 염소 사육 농가는 공수의 등이 직접 접종을 지원하고, 그 외 전업 규모 농가는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백신을 미리 접종해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과 유산 위험이 큰 1개월 이내의 임신 초기 소, 7개월에서 분만 전까지의 임신 말기 소는 접종 유예 대상으로 지정해 접종에서 제외되며, 해당 개체는 시군이 별도 관리해 이후 추가 접종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접종이 제대로 실시됐는지 평가하기 위해 접종 4주 후 지역별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을 검사하고 항체 양성률이 법정 기준치 미달일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추가 접종, 1개월 후 재검사 등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도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도내 소·염소 농가에서 빠짐없이 접종하고 농장 차단 방역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동물방역위생과 041-635-4112

밤 재배 농가 대상 묘목 무상 분양

3월 6일까지 신청 접수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도내 밤 재배 임가를 대상으로 묘목 무상 분양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분양하는 밤나무 묘목은 연청·만중·왕률 3개 신품종으로, 밤알의 평균 무게가 24~26g에 달하는 대립종이며, 당도가 높고 내한성이 강해 안정적인 수확이 가능하다.

총 분양 수량은 3개 신품종 250그루에 비교 품종 5개 250그루 등 총 500본으로, 임가 한 곳 당 20그루 정도 분양할 예정이다.

분양 신청은 3월 6일까지 도 산림자원연구소로 방문하거나, 전자우편(1emg2004@korea.kr) 또는 팩스(041-635-7978)로 하면 된다.

묘목 분양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도 산림자원연구소 홈페이지(https://keumkang.chungnam.go.kr:452/)에서 확인하면 된다.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041-635-7384

공문서 위조 소방용품 구매 강요 주의

"판매처 알선 시 112 신고"

충남소방본부 공문서를 위조해 소방공무원을 사칭하고 종교시설 등에 소방용품 구매를 강요한 사례가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도내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청의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에 따라 질식소화포 등을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위조 공문을 보내고 구매 유도 문자를 전송한 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해당 기관을 안심시키기 위해 위조 공문과 공무원증 사진을 문자로 전송하는 등 치밀하고 대담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공문을 보내 특정 물품 구매를 요구하거나 판매처를 알선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연락을 받으면 즉시 전화를 끊고 112에 신고하거나 관할 소방서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충남소방본부 041-635-5521

충남도립대 평생교육원 새 학기

31개 교육 프로그램 운영
550명 모집…누리집 신청



충남도립대 전경.

충남도립대학교 평생교육원은 3월부터 '2026년 1기 정규강좌'와 '1학기 특별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이번 학기에는 정규강좌 28개(대학본원 3개, 내포분원 25개)와 특별과정 3개 등 총 31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모집 인원은 약 550명 규모다.

대학 본원과 내포 분원에서 진행되는 교육은 진로개발, 인문교양, 외국어, 문화예술, 생활체육 등 주민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정규강좌는 3월 3일부터 5월 15일까지 약 10주 과정으로 진행된다.스마트폰 활용, 동화구연 지도자 과정, 부동산 공경매와 자산관리, 생활외국어 회화 등 실생활과 직무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문화예술 분야로는 유화와 수채화, 한문서예, 문인화, 캘리그라피, 바이올린, 판소리, 합창, 포크기타 등 취미와 전문성을 함께 키울 수 있는 과정이 운영된다. 명상호흡과 요가, 라인댄스, 줌바 등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도 포함됐다.

특별교육과정인 시니어 세대를 위한 모델 과정은 초급반과 중급·매니아 통합반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강좌별 세부 일정과 신청 방법은 충남도립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립대학교 평생교육원(☎041-635-6670~2)으로 문의하면 된다.

/충남도립대 041-635-6612



새내기 대학생이 챙겨야 할 혜택

충남도는 2월 19일 천안에 있는 백석대를 찾아 입학식에 참석한 대학 신입생들에게 문화예술패스, 충남청년포털 등 청년에게 도움이 될 정보를 소개했다. 자세한 정보는 충남청년포털(https://youth.chungnam.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청년정책관 041-635-2063

제2회 내포문화숲길 사진 공모전 재개

8월 7일까지 접수…1인당 최대 5점

충남도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중단된 '제2회 내포문화숲길 사진 공모전'을 재개한다.

도는 최근 숲길 복구와 안전점검이 마무리됨에 따라 중단됐던 공모전을 이어서 추진하며, 지난해 취소 이전에 접수된 작품과 올해 출품작을 통합 심사해 시상할 계획이다.

공모 기간은 오는 8월 7일 오후 6시까지이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출품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8월 7일 사이 내포문화숲길의 내포불교순례길 코스 일원에서 촬영한 사진이다.

사진은 3000픽셀 이상의 디지털 파일이어야 하며, 1인당 최대 5점까지 응모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내포불교순례길 내 계절별 아름다움을 담은 길 사진 등이다.

접수는 내포문화숲길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작품 파일(jpeg)과 함께 전자우편(naepotrail03@naepotrail.org)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 결과는 8월 31일 개별 통보 및 내포문화숲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내포문화숲길 누리집 공지사항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내포문화숲길 기획사업국(☎041-356-25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산림휴양과 041-635-4553

맛과 품질로 승부 '충남 쌀' 공모

3월 11일까지 신청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3월 11일까지 '제4회 충청남도 품질관리 우수 브랜드 쌀' 공모를 진행한다.

공모 대상은 충남 광역 브랜드인 '청풍명월 골드'를 비롯해 도내 각 시군을 대표하는 자체 브랜드 쌀이다.

평가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체가 제출한 시료가 아닌, 도 농업기술원이 연 3회(3·7·11월)에 걸쳐 시중 마트에서 유통 중인 제품을 직접 구매해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분석 항목은 ▲완전립 비율 등 외관 품위 ▲쌀 단백질·수분 등 성분 함량 ▲토요 식미계를 활용한 취반윤기치 ▲유전자(DNA) 분석을 통한 품종 순도 등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까다로운 검증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

이후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공무원·농협·농업인 단체 등으로 구성된 '품질관리 우수 브랜드 쌀 선정위원회'의 심층 심사를 통해 최종 3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나 단체는 도 농업기술원 작물경영연구과 쌀연구팀(☎041-635-6052) 또는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단일 품종, 생산단지 50ha 이상 등 세부 응모 기준을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충남도 농업기술원 041-635-6052



그림으로 보는 충남의 과거와 오늘

궁리포구서 마주한 고요한 서해

서해랑길 63코스를 따라 걷다 보면 만나는 궁리포구(홍성군 서부면)는 대하와 새조개가 많이 잡혀 1978년 지방어항으로 지정된 작은 포구입니다.

마을이 활처럼 휘어진 지형이라 '궁리'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합니다.

해 질 무렵이면 석양이 안면도에 내려앉고, 썰물 때마다 드넓은 갯벌이 고요하게 펼쳐집니다.

시린 바람이 스미는 겨울 오후, 빨간 등대 아래 햇살 받고 있는 고깃배들, 하루의 고단함을 내려놓은 듯 평화롭습니다.



서쪽 바다가 그리운 날, 이곳에서 소박한 포구의 정취에 머물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림 · 글 어반스케치 작가 최미경





공사중인 원예치유박람회 행사장 너머로 할미할아비바위가 보인다.

“꽃처럼 피어나는 치유의 시간”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60일 앞으로
4월 25일 개막…꽃지해안공원서 한 달간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2026 Taean International Horticultural Healing Expo

세계적인 치유정원 축제가 열린다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가 충남 서해안의 봄을 세계적인 치유정원으로 물들일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태안의 바다와 숲, 꽃과 정원이 어우러지는 이번 박람회는 단순한 꽃 전시를 넘어 ‘자연 속 회복과 치유’를 주제로 한 국제행사로 기대를 모은다.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는 ‘자연에서 찾는 건강한 미래, 원예·치유’를 주제로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총 30일간 태안군 안면읍 꽃지해안공원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02년과 2009년 국제꽃박람회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세 번째 국제 규모 행사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원예의 가치를 ‘치유’라는 관점으로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핵심 키워드 ‘원예치유’

꽃과 식물을 감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연과 교감하며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계획이다. 관람객들은 태안의 자연환경 속에서 걷고 머무르며, 정원이 주는 쉼의 의미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사 기간 동안 박람회장 곳곳은 계절의 색을 담은 테마정원과 전시 공간으로 꾸며진다.

국내외 원예 트렌드를 소개하는 정원 전시와 함께, 생활원예와 치유 콘텐츠가 결합돼 태안만의 차별화된 박람회 풍경을 만들어낼 전망이다. 특히 꽃지해안공원이 지닌 서해의 해안 경관과 생태자원은 원예 콘텐츠와 어우러져 ‘치유정원 도시 태안’의 이미지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풍성한 관람 포인트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은 물론, 정원문화 전시, 원예교육, 힐링 콘텐츠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요소들이 다양하게 준비되고 있다. 아이들에게는 자연을 배우는 체험의 장이, 어른들에게는 회복과 휴식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구성이다.

또한 박람회 기간에는 원예치유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학술행사와 강연도 예정돼 있어, 원예가 지닌 치유적 가치와 가능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농특산물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reconnect 부대행사도 함께 추진돼, 박람회를 찾는 발길이 태안 전역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막바지 손님맞이 준비 한창

한편 박람회 입장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입장 요금은 일반 성인 기준 현장 구매 시 1만 5000원, 예매 시 1만 3000원이며, 청소년과 어린이, 단체 관람객 등을 위한 할인 혜택도 마련돼 있다. 모바일 QR티켓을 통해 행사 기간 중 간편하게 입장할 수 있어 관람객 편의성도 높였다.

/도정신문팀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개요

기간	2026. 4. 25.(토) ~ 2026. 5. 24.(일) / 30일간
장소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도 꽃지해안공원 일원
참가규모	182만 명(내국 172, 외국 10), 40개국, 120개 기업
주최 · 주관	충청남도 · 태안군 / 주관 (재)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조직위원회

입장권 안내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공식예매처

일반	청소년	어린이
19세 이상 (07년생 ~)	13세 이상 ~ 18세 이하 (08년생 ~ 13년생)	3세 ~ 12세 (14년생 ~ 23년생)
15,000원 → 10,000원	12,000원 → 7,000원	9,000원 → 5,000원

※ 입장권은 부분환불이 불가합니다.

박람회 주요 프로그램



원예 · 치유 체험 행사



주요 행사

구분	프로그램
공식행사	개장식, 개 · 폐막식
상설행사	마술쇼, 발룬쇼, 프린지, 국악, 시군의 날, 뮤지컬 등
공연 프로그램	다양한 형식의 치유 버스킹 무대공연

대한민국의 정원 태안!

원예치유란?

식물을 가꾸고 돌보는
다양한 원예활동을 통해
사람들의 사회성,
학습능력, 정서적 안정,
그리고 신체 건강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더 나은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 Blooming Time of Healing

행사장조감도





겨울 별미 태안 냉이 출하 충남 태안에서 갯바람을 맞고 자라 맛과 향이 뛰어난 냉이 출하가 한창이다. 사진은 2월 10일 태안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에서 작업자들이 냉이를 선별 포장하는 모습. /태안군

“농어민 수당 신청하세요”

천안·태안·홍성·서산·논산 4월 24일까지 신청·접수

천안·태안·홍성·서산·논산 등 각 지역에서 농어민수당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지난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충남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같은 기간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농어민이다. 단 2024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된다.

2월 19일부터 4월 24일까지 65일간 주민등록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받는다.

지급 금액은 가구 내 지급 대상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인 가구는 80만 원을 받으며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45만 원씩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동일 가구 내 인원 제한 없이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희망자는 기간 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각 시군에서는 대상자 검증을 거쳐 8월 중 지역화폐로 수당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천안·태안·홍성·서산·논산

서천 청년 스마트농업 아카데미 운영

신규 유입~영농 승계 맞춤형 특별과정 마련

서천군농업기술센터에서 관내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스마트농업 아카데미’ 교육생을 3월 6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3월 12일부터 4월 23일까지 총 14회 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육은 청년농 성공사례 특강을 시작으로, 서천군 청년농업인의 90% 이상이 승계농인 점을 반영해 경영권 이양과 절세 전략 등 실질적인 승계 로드맵을 포함했다.

또한 고가 장비 없이 실천 가능한 저비용 스마트팜 기술, 생성형 AI를 활용한 사업계획서 작성, 나만의 농장 브랜딩 실습 등 현장 적용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된다.

특히 1박 2일 현장학습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한 청년 대표들을 만나 창업 스토리를 직접 듣고, 서천 소곡주를 활용한 마케팅 사례 등 지역 특산품 가공·유통의 발전 가능성도 함께 모색한다.

강사진은 유통·가공 창업, 스마트팜, AI 사업계획서 작성, 승계농 컨설팅, 브랜딩·마케팅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모집 대상은 서천군 관내 45세 이하 청년농업인 30명이며, 접수는 3월 6일까지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에서 방문 신청을 받는다.

/서천군

사랑을 위하여

독자투고

우리가 갈망하는 청순한 사랑이란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하겠다.

즉 사랑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다.

에로스(Eros)적 사랑이 있고, 아가페(Agape)적 사랑이 있으며, 필로스(Phils)적 사랑이 있다.

사랑은 사람에게 생에 대한 의욕을 불어 넣어 주는 원동력이다.

사랑할 때 눈에는 삶의 의지가 있으며, 얼굴에는 환희가 있다.

그래서 ‘파스칼’은 “총명한 사람은 자기에게 유리하므로 사랑하는 것이라면 사랑 자체에서 행복을 발견하므로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갈파하지 않았던가!

남자와 여자가 갖는 사랑의 색채는 다르겠지만 사랑에 관해서 가장 민감 할 때는 모든 것을 주고 뺐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한 번쯤 주어지는 사랑의 동경이야말로 참다운 순수의 꽃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

사랑이란, 한철 만개했다가 시들어지는 짧은 인생의 꽃이나 다름없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이 중요하다면 그중에서 인생의 꽃은 진정한 사랑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사랑의 진리가 통하고 철학이 깃들며 멋을 즐길 줄 아는 인생관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통해서 멋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량을 길러야 하겠다.

평형대 위에선 선수가 균형을 잃으면 넘어지듯 우리도 무분별한 사랑 때문에 가치 기준의 균형을 잃고 비틀거려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참다운 사랑을 좀 더 많은 이해와 따뜻한 애정의 손길로 순결한 사랑에 정성을 기울여야 하겠다.

오늘날에 와선 웬지 「젊은 베르테르의 슬품」 속의 주인공 「롯테」 나 「로미오와 줄리엣」 과 같은 사랑은 점차 사라져 가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무분별한 사랑에서 오는 풍기문란 행위나 성 관념이 희박하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다는 사건들을 종종 접할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정열에 넘치는 사랑은 이성으로부터 감정과 애정과 그리고 욕망까지도 빼앗고도 만족하지 못한다고 했다.

사랑은 인간 생활에 가장 중요한 요체이므로 아무 데서 줍거나 누구한테서 빌리거나 어디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사랑이란 주기만 하는 것도 아니요, 받기만 하는 것도 아니다.

「키케로」는 “사랑이란 모든 것을 주고 뺏는다.”라고 했지만 진정한 사랑이란 받는 것보다는 주는 사랑이 얼마나 더 숭고하고 아름다운 것인가.

사랑이 계산적이거나 어떤 목적성을 띠면 아름다운 순수성을 잃게 될 것이다.

사랑이 우리에게 일곱 가지 색깔로 비칠 때 그것은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벌과 나비들이 한 방울의 꿀을 찾아 헤매며 사랑을 나누듯, 우리들도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여 진실한 사랑을 나누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보배로움을 좀먹는 안일과 나태, 부질없는 사랑들을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가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사랑이란 아무래도 모를 일이다. 그것은 역시 방정식 문제를 푸는 것보다도 어려운 일이었다.

/최병부(충남 서산시)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보내는 곳 : cnnews@korea.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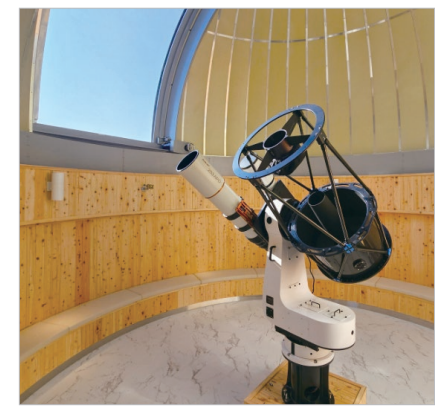
*원고 800자 이내, 성명·전화번호·주소·본인명의 계좌번호 기재.

문의 : 041-635-4938

*도정신문 원고료 지급기준에 따라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논산 별빛누리 천문대 문 연다

500mm 반사망원경 설치 시범운영 후 3월 말 개관



논산 별빛누리 천문대.

아이들이 밤하늘을 보며 우주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논산에 문을 연다.

3월 3일부터 논산열린도서관 4층에 조성된 ‘논산 별빛누리 천문대’의 시범운영을 시작되며 2월 24일부터 예약 접수를 받는다.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3월 말 정식 개관된다.

‘논산 별빛누리 천문대’는 지름 6m 규모의 돔형 관측실에 500mm 반사망원경을 주 관측장비로 설치했으며 태양망원경 및 보조망원경 등 논산 지역의 관측 환경에 최적화된 장비를 갖추고 있다.

3월 한 달간 총 8회에 걸쳐 주·야간 천체관측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태양·달·행성·성단 등을 직접 관측할 수 있다.

특히 첫 운영일인 3월 3일에는 개기월식이 예정돼 있어 참여 시민들에게 더욱 특별한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천문대 시범운영은 회차당 20명 이내 예약제로 운영되며 신청은 24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예약 방법 및 세부 일정은 논산열린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논산시

천안 ‘원거리 통학’ 시내버스 노선 강화

불당·청룡동 등 과밀지역

원거리 통학에 불편을 겪고있는 천안시 학생 과밀지역에 시내버스 노선이 증·신설된다.

신설되는 일반 노선은 3월 1일부터, 학생 노선은 공휴일을 제외한 3월 3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불당동 지역에는 ‘96번 학생 노선’이 신설된다. 해당 노선은 신불당 호반센트로포레와 계광중학교를 기·종점으로 하며 등·하교 시 각 3회 운행한다.

특히 월봉중, 쌍용중, 봉서중, 서여중, 계광중 등 주요 학교 인근의 불당대로와 쌍용대로를 경유해 학생들의 접근성이 편리해진다.

청룡동 지역은 일반 노선인 ‘72번’이 신설되어 천성중학교를 경유한다. 이는 기존 71번 노선을 분리한 것으로 등·하교 시간대를 중심으로 2회 운행된다.

또한, 기존 91번 학생 노선의 경로를 조정해 청당초등학교 주변 신규 개발 지역 아파트를 경유하도록 함으로써 신규 입주 학생들의 통학권이 보장된다.

/천안시

예산 예당호 음악분수 3월 재가동

운영 횟수 6회로 확대

예산군 대표 관광 명소인 ‘예당호 음악분수’가 동절기 휴장을 마치고 3월 1일부터 재가동한다.

기존 오후와 야간 시간대에만 운영되던 음악분수는 올해부터 오전 11시에도 가동한다.

오전 방문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 운영 방식을 개선한것으로 보인다.

예당호 음악분수 운영 시간이 평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5시, 오후 7시 30분, 오후 8시 30분 등 하루 5회 가동하며 주말·공휴일에는 오후 6시 30분을 추가해 6회 운영한다.

/예산군

싱그러운 봄, 충남의 꽃동산으로 초대합니다

월간 충남 3월호 발간
봄나들이 명소 소개



충남도가 '충남이 빚은 싱그러운 봄으로의 초대'를 주제로 한 '월간 충남 3월호'를 통해 도내 아름다운 봄 풍경과 제철 먹거리를 담은 특별한 여행 일정을 공개했다.

500년 동백의 설렘 가득 서천

서천 마량리 동백나무숲은 5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견뎌온 동백나무 군락이 장관을 이루는 서천 대표 자연유산으로, 동백정 앞의 작은 섬 오력도와 서해의 황혼이 어우러지는 일몰 풍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해 사계절 내내 수많은 사진작가와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동백꽃이 절정을 향해가는 시기 마량진항 일원에서는 '서천 동백꽃 주꾸미 축제(3월 21일~4월 5일)'가 화려하게 열린다.

동백의 개화기와 주꾸미의 제철이 맞물려 열리는 이 축제는 봄의 정취와 맛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세계 주요 생태계를 한자리에서 체험하고 해양 생물의 신비를 엿볼 수 있는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1.5㎞ 해안을 따라 1만 2000여 그루의 해송이 자리잡은 장항송림자연휴양림, 송림 너머로 펼쳐진 서해의 장엄한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장항스카이워크도 서천 여행의 주요 관광지다.

서천 여행은 마량리 동백나무 숲 → 서천 동백꽃 주꾸미 축제 → 성경 전래지기념관 → 서천특화시장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장항송림자연휴양림·스카이워크 → 국립생태원 → 조류생태전시관 → 문헌서원 → 한산모시관을 추천한다.

매화·딸기 향기에 물드는 논산

달콤한 딸기향이 느껴지는 3월 논산에선 '논산딸기축제'가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논산시민가족공원 일원에서 펼쳐져 전국 최고를 자부하는 논산 딸기의 맛과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축제와 함께 들러야 할 추천 명소는 조선시대 파평 윤씨 가문의 교육기관이었던 종학당으로, 3월 중순이면 홍매화가 만개해 장관을 이뤄 방문객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논산의 대표 관광지인 탑정호에선 600m에 이르는 압도적인 길이의 출렁다리가 호수 위를 걷는 듯한 짜릿함을 안겨주고, 탁 트인 호수 풍경은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준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촬영지로 유명한 인근 논산 선샤인랜드에서도 드라마 배경이 된 '선샤인 스튜디오'와 한국전쟁 직후를 담은 '1950 스튜디오'가 옛 향수와 추억을 선사한다.

논산 여행 일정으로는 종학당 → 명재고택 → 한국유교문화진흥원 → 논산딸기축제 → 강경근대거리 → 논산 선샤인랜드 → 반야사 → 탑정호 → 연산문화창고를 추천한다.

노랗게 채우는 봄빛 서산에서

나지막한 산등성이가 노란 수선화 물결로 출렁이는 서산의 봄은 충청남도 민속문화재 제23호인 유기방 가옥에서 만날 수 있다.

1919년 건립된 전통 가옥을 배경으로 2만 평 넘는 대지에 펼쳐진 수선화와 고택의 정취는 겨우내 묵은 피로를 덜어낼 시간을 준다.

'한국의 작은 알프스' 서산 한우목장에서는 최근에 준공된 목장을 가로지르는 2.1㎞ 길이의 산책로를 걸으며 탁 트인 경관을 만끽할 수 있다.

목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조선시대 읍성 중 가장 잘 보존된 평성인 해미읍성이 있는데, 이곳은 이순신 장군이 군관으로 근무했던 역사적 장소이자 조선 후기 천주교 박해의 아픔을 간직한 성지이기도 해 전 세계 순례객이 주목하는 핵심 명소로 부상하고 있다.

서산 삼길포항은 해양 레저와 먹거리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명소로, 부두에 배를 대고 바다 위에서 갓 잡은 자연산 회를 즉석에서 떠주는 삼길포의 명물 '회 뜨는 선상'은 식도락가 사이에 인기가 높다.

서산 여행 일정으로는 서산 보원사지 → 유기방 가옥 → 한우목장 웰빙 산책로 → 해미읍성 → 간월암·간월도 스카이워크 → 류방택 천문기상과학관 → 팔봉산 → 안견기념관 → 황금산 코끼리바위 → 삼길포항을 추천한다.

충남 물들이는 봄꽃 향연

도 전역은 시기별로 저마다의 색을 품은 꽃들이 군락을 이뤄 수채화 같은 풍경을 보여준다.

가장 먼저 봄의 문을 여는 전령사는 매화로 3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논산 종학당과 공주 신원사, 아산 현충사 등에서 우아하게 피어난다.

매화 향기가 옅어질 무렵인 3월 하순에는 서천의 붉은 동백이,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는 황금빛 수선화가 자리를 대신한다.

수선화는 서산 유기방 가옥과 추사 김정희 선생의 선비 정신이 깃든 예산 추사고택, 홍성 거북이마을 산책로 등지에서 감상할 수 있다.

한편 도는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 논산과 서천행 열차를 이용하는 '지역사랑철도' 여행객에게는 운임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충청권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객에게는 인근 관광지 입장료 할인 혜택을, 서산시 스탬프투어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한한다. 상세한 정보와 혜택 안내는 충남관광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광진흥과 041-635-2445

계절마다 다른 보령의 '4색 매력'

주꾸미·벚꽃·머드·억새·굴
눈·입 즐거운 축제 다채

봄부터 겨울까지 보령시의 계절별 매력을 담은 축제들이 관광객을 기다린다.

3월부터 4월까지는 무창포에서 타우린이 풍부한 주꾸미와 봄철 별미 도다리를 맛볼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

왕벚나무 2천여그루가 터널을 이룬 6.7㎞ 구간의 주산 벚꽃길, 봄꽃들과 함께 맨발로 황톳길을 걷는 이색체험을 즐길 수 있는 옥마산도 봄나들이객을 맞는다.

5월에는 국제 모터페스티벌이 대천해수욕장 머드엑스포광장에서 펼쳐져, 자동차 문화의 다채로운 면모를 만날 수 있다.

7~8월에는 대한민국 대표 여름축제인 보령머드축제가 열린다. 다채로운 공연과 드론쇼 등이 밤낮없이 이어지며 여름 해변을 뜨겁게 달구고,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는 피부 관리와 족욕 등 머드 힐링 체험을 즐길 수 있다.

9월에는 무창포에서 '바다의 자양강장제'로 불리는 대하와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전어를 맛볼 수 있다.

10월에는 원산도·효자도 머드붕장어 축제가 마련돼, 칼슘과 비타민A가 풍부한 붕장어를 맛보고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9~10월에는 충남 3대 명산인 오서산 능선을 따라 펼쳐지는 은빛 억새 물결과 성주산의 붉게 물든 단풍이 가을 산행의 묘미를 선사한다.

11~12월에는 보령 9미(九味) 중 하나인 천북굴로 만든 고소한 굴구이와 진한 국물의 굴칼국수, 굴국밥 등 다양한 요리로 겨울 미식을 만끽할 수 있다.

12월에는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가 한 해의 대미를 장식한다. /보령시

계룡산 일부 탐방로 3~4월 출입 통제

민목재~자티고개 구간

계룡산국립공원 민목재~자티고개 구간이 산불예방을 위해 3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출입이 통제된다.

국립공원공단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는 봄철 산불조심 기간을 맞아 산불예방과 자연·문화자원 보호를 위해 3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일부 탐방로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탐방객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와 자연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출입이 통제되는 구간은 동학사지구에서 수통골지구로 이어지는 민목재~관암산~백운봉~자티고개구간으로 총 1개 구간이다. 해당 구간을 제외한 19개 탐방로는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한편 통제 구간에 무단 출입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어 탐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계룡산국립공원

www.chungnam.go.kr 충청남도청

꽉찬 알·쫄깃한 맛…제철맞은 서해 주꾸미

충남이면 충분해 와wow!

'맛있는 충남'
(5)봄철 명물 주꾸미





▲ 충남관광캐릭터 워디가디 주꾸미 샤브샤브.▶

충남 서해안의 봄철 명물인 주꾸미 계절이 돌아왔다.

주꾸미는 매년 두 차례 성수기를 맞는다. 산란하는 금어기(매년 5월 11일~8월 31일)를 제외한 3월부터 5월까지, 9월부터 11월까지가 제철이다.

봄철(3~5월) 주꾸미는 일명 '쌀'이라 불리는 알이 꽉 차, 오독오독 씹히는 식감과 고소한 맛이 일품이다. 가을철(9~11월)에는 여름 동안 먹이활동을 활발히 한 탓에 살이 단단하고 감칠맛이 풍부하다.

주꾸미 성분과 효과도 탁월하다. 오징어나 문어보다 타우린이 높아 피로감을 줄이는 데 좋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액순환 개선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또 철분과 무기질이 많아 빈혈 예방에 좋고, 고단백이지만 칼로리가 적어 다이어트에도 좋다.

충남 보령, 서천을 비롯해 태안, 홍성 등은 주꾸미 주산지다. 봄에는 보령과 서천에서 주꾸미 축제도 열린다. 가을에는 주꾸미 낚시를 즐기려는 관광객이 전국에서 몰려온다.

혈액순환 개선·빈혈 예방 효과

주꾸미는 충남과 특별한 인연이 있다.

2007년 7월 20일. 태안군 근흥면 마도 앞바다에서 어부 정 모 씨는 주꾸미를 잡기 위해 바다에 던져 놓은 던져 놓은 소라 껍질을 거둬 올린 뒤 주꾸미가 감싸고 있는 예사롭지 않은 접시를 발견했다. 원래 주꾸미는 소라 껍질 안에 알을 낳고 조개껍데기나 돌멩이로 막아 놓는 습성이 있는데 돌멩이 대신 바닷속 바닥에 있는 접시로 막아 놓은 상태에서 발견된 것.



◀ 주꾸미가 물고 나온 고려청자.

그릇을 본 정 씨는 예사롭지 않다고 판단하고 곧바로 태안군에 알렸다. 조사 결과 주꾸미가 물고 나온 접시는 바로 고려청자. 연판문양 대접 3점과 접시 1점이었다. 수중 탐사 결과 900년 가까이 물속에 잠겨 있던 선박(태안선)이 발견됐고 주변에서는 고려 백자 1점을 포함한 고려청자 2만 5000여 점이 발견됐다. 태안 앞바다가 '수중 보물의 도시', '바닷속 보물창고'로 이름을 갖게 된 배경이다.

이후 마도 앞바다에서는 2015년까지 마도 1·2·3·4호선 등 다수의 난파선이 잇따라 발굴됐다.

이처럼 태안 신진도 앞바다에서 다량의 유물이 발굴된 배경에는 주변 물길이 험하기 때문. 고려와 조선시대 세금으로 거둔 곡식(세곡)과 궁중에 바칠 특산물(공물)을 운송하는 조운선들은 대부분 태안 앞바다의 '안흥량'을 지나야 했는데 이곳은 바닷물이 거세고 암초가 많아 항해가 매우 까다로웠다고 한다.

신진도에는 2018년 태안 앞바다에서 발굴된 수중 유물을 전시하는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https://www.seamuse.go.kr/taean)이 문을 열었다. 인양된 수만 점의 보물과 마도호, 그리고 각종 체험과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 입장료는 무료다.

보령·서천서 축제 잇따라

3월로 접어들면 보령과 서천에서 주꾸미 축제가 잇따라 열린다.

보령 무창포 주꾸미 축제의 경우 올해 3월 20일부터 4월 초까지 열린다.

때마침 이 기간은 무창포 앞 바닷길이 열리는 시기. 3월 19일(오전 9시 31분)부터 22일(오전 11시 46분)까지 무창포해수욕장에서 앞 석대도까지 1.5㎞ 구간이 열린다.

바다 한가운데 펼쳐진 한국판 '모세의 기적'을 경험하며 자연이 선사하는 경이로움과 함께 조개와 게 등을 잡는 체험도 할 수 있다. 바닷길이 열리는 정확한 시간과 행사 내용은 무창포 어촌계(041-936-3510)나 보령시 무창포해수욕장 누리집(www.moochangpo.com)에서 확인하면 된다.

주변에는 대천해수욕장, 죽도 상화원, 개화예술공원 등이 있다.

서천에서는 동백꽃이 활짝 피는 3월 21일부터 4월 5일까지 마량진항에서 열린다. 주꾸미 낚시 체험, 동백정 선상유람투어, 동백나무숲 보물찾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마련된다. 특히 동백섬 인근에서 주꾸미를 잡는 낚시 체험도 가능하다. 오전 11시 반, 오후 1시 반 등 2차례 운영하며 현장 접수 가능하다. 낚시대와 미끼가 제공되며 1인당 1만 3000원(1시간 가량). 자세한 내용은 서면개발위원회(041-952-9123)에 문의하면 된다.

주요 관광지로는 인근 동백숲이나 장항 국립생태원과 해양생물자원관. 송림해수욕장과 스카이워크, 판교 '시간이 멈춘 마을', 희리산 자연휴양림. 장항도시탐험역, 서천특화시장 등이 있다. 당일보다는 미리 시간을 내 1박2일 여행하기 좋은 곳이다.

가격 지난해 수준…요리는 다양

주꾸미 가격은 해마다 어획량에 따라 결정된다. 지난해 축제 때에는 어획량이 적어 축제장에서 상차림비를 포함해 1㎏(중급 15마리 정도)당 7만원 선에 거래됐다. 2명이 먹기에 충분하다. 올해에는 다소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주꾸미는 매콤한 볶음이나 살짝 데쳐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 샤브샤브가 일반적이지만 현지민들은 회로 먹기도 한다.

주꾸미 요리 중 옛날부터 충남 서해안 사람들은 들기름으로 무와 양파, 주꾸미를 한 데 볶은 후 고춧가루를 뿌려 매콤하게 볶아먹는 주꾸미 들기름 볶음을 즐겼다.

/이기진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주꾸미 들기름 볶음



재료 : 주꾸미 500g(5마리), 무, 대파, 양파, 마늘, 고춧가루, 들기름, 양조간장, 약간의 설탕, 깨소금.

▶조리법

① 냄비나 팬에 들기름을 충분히 두르고 채 썬 무를 볶고 반쯤 익었을 때 양조간장과 고춧가루, 다진 마늘 넣어 함께 볶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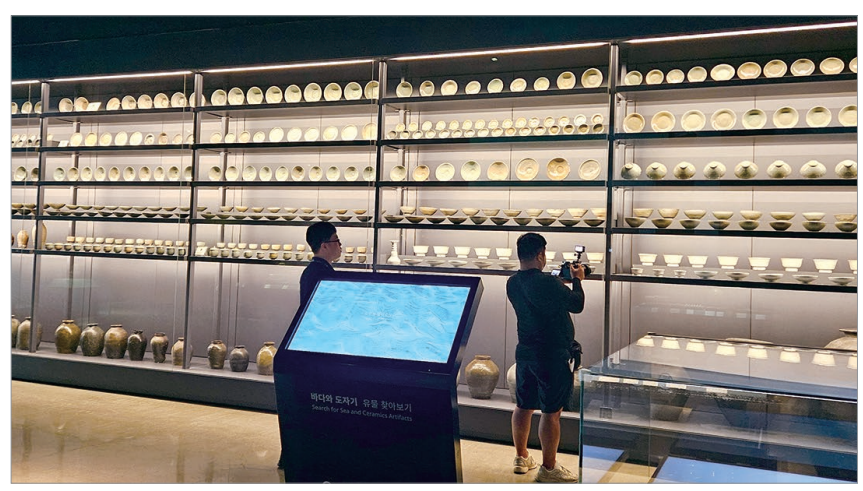
② 손질한 주꾸미는 머리부터 넣고 볶다가 어느 정도 익었을 때 다리를 넣는다.

③ 마지막으로 양파와 대파를 넣어 완성한다.

※TIP : 주꾸미는 너무 익히면 질겨진다. 머리를 먼저 넣고 어느 정도 익었을 때 손질한 다리를 넣어 적당하게 익혀야 부드럽고 감칠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마도 1호선.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 내부.

충청남도청 www.chungnam.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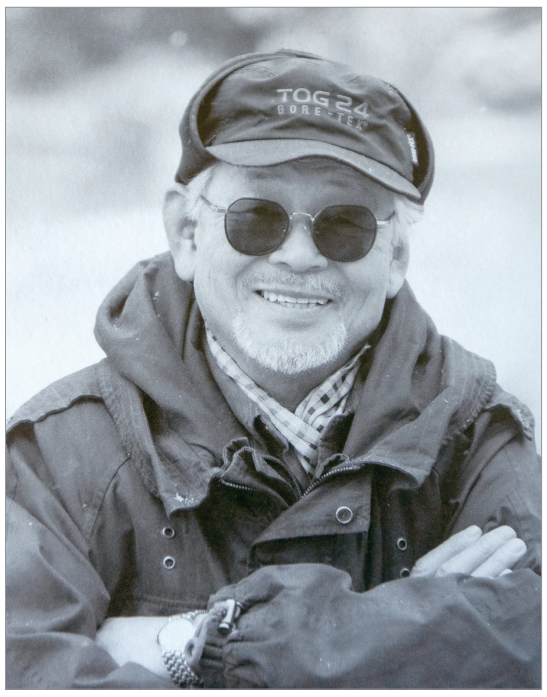
▲임립미술관 전경.

◀임립 화백의 작품 '계룡산1' (oil on canvas 116.8×1.0).

고향 땅 공주에 뿌린 예술의 씨앗

충남 지역 작가의 발자취를 찾아서

〈11〉 임립



임립 화백. /임립미술관 제공

겨울 숲이 품은 미술관

공주시 계룡면 봉곡길의 굽이진 길을 따라가면 겨울 숲이 마중을 나온다. 잎사귀를 떨구고 뼈대를 온전히 드러낸 나무들이 길을 열어주는 곳, 그 끝자락에 임립미술관이 있다.

숲의 고요함 속에 자리 잡은 미술관은 한 예술가의 붓질이 차곡차곡 쌓여 완성된 하나의 거대한 '작품' 같다. 화려한 색채가 잠시 숨을 고르는 계절, 자연과 예술은 경계 없이 뒤섞이며 새로운 풍경을 빚어낸다. 그 풍경 속에서 한 화가가 평생을 바쳐 가꿔온 예술의 밭이 얼마나 비옥한지 새삼 목격한다.

임립미술관은 충남 지역에서 규모가 제법 큰 사립 미술관으로 꼽힌다. 미술관에 들어서면 먼저 안쪽에 위치한 본관부터 관람하는 것이 좋다. 대전시실과 소전시실을 가득 메운 임립 화백의 작품은 압도적인 에너지로 관람객을 맞이한다. 이곳의 백미는 단연 3층에 마련된 작업실이다. 화백이 실제 창작에 몰두하는 이 내밀한 공간은 거장의 숨결과 치열한 고뇌를 가장 가까이서 엿볼 수 있는 창과 같다.

특별전시관 A동은 층별로 마련된 드넓은 전시실을 통해 품격 있는 기획전과 초대전을 선보인다. 반면 B동은 실험적이고 개성 넘치는 작품들을 위한 소규모 전시 공간으로 운영된다. 전시관 밖으로 발길을 옮기면 약 3,000㎡ 규모의 야외 조각공원이 펼쳐지는데, 산책로를 따라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풍경이 펼쳐진다. 또한, 교육 공간에서는 다채로운 미술 강좌와 체험 프로그램이 열리고, 카페 '미술관 속 풍경'과 호수공원은 관람객에게 아늑한 쉼터가 되어준다. 이곳에서 우리는 충남 예술의 거목, 임립 화백의 예술 세계와 자연스럽게 호흡하게 된다.

지역 예술 밝히는 등대

1997년 10월, 임립 화백은 자신의 이름을 내건 미술관을 이곳 기산리에 세웠다. 사립 미술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예술가로서의 삶과는 또 다른 고행의 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자신의 고향 땅에 예술의 씨앗을 뿌리고, 그 열매를 지역민들과 나눔으로써 예술이 소수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일부임을 증명해 내고 있다.

임립미술관은 작품 전시뿐만 아니라 예술의 저변을 넓히고 지역 예술을 이끄는 등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주는 '어린이 미술실기대회'와 지역민들을 위한 '미술 문화 강좌', 세대를 아우르는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그리고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유유유(YOU-유쾌한·YOU-유익한·YOU-유의미한) 프로젝트' 등이 그 증거다. 이러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은 미술관의 문턱을 낮추어 지역민의 일상에 예술의 향기를 더한다.

나아가 매년 가을에 개최하는 '공주국제미술제'는 충남의 예술적 저력을 세계에 알리고, 해외의 다양한 예술가와 작품을 지역으로 불러들이는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멈추지 않는 예술 여정

팔순을 넘긴 지금도 임립 화백의 손에는 여전히 붓이 들려 있다. 평생 몸담았던 대학 강단에서 물러났으나 그에게 은퇴란 없다. 매일 아침 작업실 창을 열고 자연의 기운을 마주하며 새로운 캔버스 앞에 선다. 쉼 없는 창작 열정은 어느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계절의 흐름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며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

그의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동심'과 '고향'은 영원한 안식처이자 영감의 원천이다. 이는 대중적 소재인 만큼 자칫 예술적 깊이가 결여된 키치(Kitsch)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하지만 임립 화백은 이러한 함정을 강렬한 원색의 대비와 거친 질감, 즉 마티에르(Matiere)를 활용한 비구상적 터치로 돌파하며 소재의 본질적인 생명력을 현대적 기법으로 승화시켰다.

이에 대해 미술평론가 장준석은 "그는 현대미술이 너무 많은 이론으로 범벅되어 아름다움에 진지하게 접근하기 어렵다고 여기며, 어떤 미술의 장르에 서서 자신의 작품을 합리화하기보다는 가장 현대적이면서도 인간적, 자연적인 것과 순수함에 호소하는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해 왔다."라고 평했다.

지금 임립미술관 전관에서 열리고 있는 《임립의 예술세계-스케치 중심으로》 전시는 화백의 평생에 걸친 예술적 고뇌와 그 기저를 이루는 '날것의 숨결'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2026년 4월 26일까지 이어지는 이 전시는 화려한 유채의 뒷면, 즉 작가가 대상을 처음 마주했을 때의 설렘과 정밀한 관찰이 담긴 스케치들을 조명한다.

그 무수한 선들은 훗날 캔버스를 가득 채울 강렬한 생명력의 밑그림이자, 작가가 자연과 나눈 가장 은밀한 대화의 기록이다. 그러므로 스케치의 궤적을 따라가면 한 거장이 도달한 예술적 경지의 실체와 온전히 마주하게 될 것이다.





▲ 임립 화백의 화실
◀공주국제미술제 전시도록
▼미술관 카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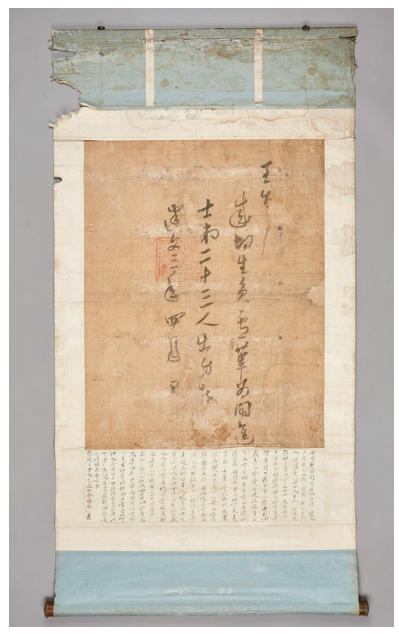




글·사진 장수현 시인

조선의 기틀 세운 국왕의 임명장

문화유산 100배 즐기기
(5) 노혁 왕지


노혁왕지(원본).

충남역사박물관의 보물창고에서 네 번째로 꺼낸 유물은 조선 건국 초기의 긴박한 시대 상황을 고스란히 전하는 문서, '건문삼년 노혁 왕지(建文三年 盧革 王旨)'입니다. 1401년, 태종 즉위년(태종 1년)에 발급된 이 문서는 노혁이라는 인물에게 관직을 내린 임명장으로, 조선 초기에 국왕의 명령서가 어떤 형식과 명칭을 사용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희귀한 사례입니다.

우리가 사극에서 흔히 듣는 "봉교지(奉敎旨)~"라는 대사처럼, 조선 시대 임금의 공식 명령서는 일반적으로 '교지(敎旨)'라 불립니다. 그러나 조선이 막 출범하던 초기에는 잠시 '왕지(王旨)'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고려의 제도를 벗어나 조선만의 국가 체계를 정립해 가던 과도기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셈입니다. 이후 태종 11년을 기점으로 명칭이 '교지'로 통일되기에, '왕지'라는 표현이 남아 있는 이 문서는 그 자체로 특별한 역사적 가치를 지닙니다.

문서 중앙에 찍힌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이라는 어인은 이제 막 세워진 나라, 조선의 권위와 신뢰를 상징합니다. 아직 제도도, 관습도 완전히 자리 잡지 않았던 시기였지만, 국왕의 명령이 국가 운영의 중심에 놓이기 시작했음을 이 도장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이 문서의 주인공 노혁(盧革)은 원래 고려에 몸담았던 인물로, 새로운 시대의 선택 앞에 섰던 사람입니다. 국왕은 이 왕지를 통해 그에게 관직을 맡기며 새로운 나라의 운영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 장의 문서에 한 개인의 인생 전환점과 한 국가의 출발선이 동시에 담겨 있는 셈입니다.

전시실에서 이 문서를 마주하고 있으면, 새 나라를 세우고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고민했을 15세기 사람들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화려한 금관이나 찬란한 보석은 아니지만, 이 오래된 종이 한 장에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원칙과 질서 위에서 출발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600년 전 임금님이 직접 건넨 합격 통지서, 그 속에 담긴 설렘과 긴장을 직접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박물관장 이경복





돌, 부서지다

기간 2026-02-23(월) ~ 2026-03-29(월)
장소 천안중앙도서관
시간 09:00~22:00
문의 041-521-3722

전시 '돌, 부서지다'는 다가오는 3월 1일 삼일절을 계기로,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를 돌아보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쉽게 지나치는 흔적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천안시민이 많이 찾는 열린 공간 속 천안중앙도서관, 갤러리 허송세월에서 자연스럽게 전시를 마주하고, 그 속에 담긴 이야기와 감정에 공감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대한민국 곳곳에 아직도 남아 있는 식민지 시대의 잔재인 건축, 건축, 철도, 지명, 문화적 흔적 등 우리가 여전히 그 역사의 한가운데를 살아가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이번 전시가 그런 '보이지 않는 역사'를 다시 드러내고, 다시 말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사서들의 서재

안락함 속에 가려진 진짜 삶의 감각



편안함의 습격/마이클 이스터/수오서재/2025

"아랫마을 사람들은 아사 직전인데, 여기는 어찌 이리 풍족합니까?"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속 엄흥도의 절규는 결핍이 일상이었던 시대의 초상이다. 조선의 백성들에게 배고픔은 생존을 위협하는 공포였으나, 600년이 지난 오늘날 아사는 낯선 단어가 되었다. 우리는 이제 굶주림 대신 무엇을 먹지 않을지를 고민하는 기묘한 풍요 속에 살고 있다.

책의 저자 마이클 이스터는 이 안락한 풍요가 현대인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보이지 않는 독이라고 단언한다. 저널리스트이자 교수로서 정제된 삶을 살던 그는 알래스카의 황야로 자신을 스스로 내던진다. 33일간의 순록 사냥 원정은 단순한 탐험을 넘어, 편안함에 중독되어 퇴화해 가는 인류의 야성을 일깨우는 수행에 가깝다. 그는 이 책을 통해 북극의 극한 생존기와 뇌과학, 운동생리학 등을 교차시키며 우리가 외면해 온 '불편함의 가치'를 치열하게 입증해 낸다.

인류가 지속적인 편안함을 누린 기간은 전체 역사 중 고작 0.004퍼센트에 불과하다. 나머지 99.996퍼센트의 시간 동안 인류의 유전자는 결핍과 투쟁하며 진화해 왔다. 작가는 현대인이 이 짧고 기형적인 편안함에 잠식되어, 정작 험난한 세상을 버텨낼 생존 근육을 잃어버렸음을 지적한다.

이스터는 이 마비된 감각을 깨우기 위해 자신을 극한의 결핍 속으로 몰아넣는다. 춥고, 배고프고, 지독하게 심심한 알래스카의 야생은 그가 누려온 모든 문명의 혜택을 박탈한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는 역설적으로 미덕을 발견한다. 끊임없는 알림음에 시달리던 뇌는 따분함 속에서 창의성을 되찾고, 소셜 미디어의 가짜 연결 대신 고독 속에서 진짜 자아를 마주한다. 죽음의 공포와 맞바꾼 이 처절한 경험은 그를 안락함에 중독된 '현대인'에서 생동감 넘치는 '인류'로 다시 태어나게 한다.

야생의 한복판에서 그는 생존의 위협과 동시에 '죽음'이라는 거대한 실체를 마주한다. 인류의 모든 역사는 우주 달력으로 환산하면 12월 31일 23시 59분 33초부터 시작된, 단 27초의 찰나에 불과하다. 그 광대한 시간 속에서 한 개인의 삶은 측정조차 불가능할 만큼 짧다.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일찍이 "만일 내가 죽음을 삶 속으로 끌어와 인정하고 정면으로 바라본다면, 비로소 나는 자유롭게 나 자신이 될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죽음이 언제나 곁에 있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사소한 불편에 불평하는 대신 살아있다는 감각 그 자체에 집중하게 된다.

/엄수지 사서

문화 행사



알라딘과 요술램프

기간 2026.02.07.(토)~03.28.(토)
시간 토 13:30, 15:30
장소 도고아트홀
문의 041-542-5145



버블에스의 컬러버블쇼

기간 2026.02.18.(수)~03.29.(일)
시간 13:30, 15:30
장소 아산 도고아트홀
문의 041-542-5145



YB REMASTERED 3.0 : Odyssey

기간 2026.02.28.(토)~03.01.(일)
시간 토 18:00/일 17:00
장소 천안예술의전당
문의 1544-1555



국악 고영열 전국 투어 미니콘서트

기간 2026.02.28.(토)
시간 17:00
장소 공주 바드챔버하우스알프홀
문의 070-8018-8473



장필순 콘서트 <계절의 사이에서>

기간 2026.03.03.(화)
시간 19:00
장소 금산다락원 소공연장
문의 0507-1326-3493



<연극> 친정엄마와 2박3일

기간 2026.03.06.(금)~07.(토)
시간 금 19:30/토 14:00, 18:00
장소 천안예술의전당 대공연장
문의 1544-6399



<연극> 사의 찬미

기간 2026.03.06.(금)~07.(토)
시간 금 19:00/토 15:00
장소 논산아트센터
문의 041-730-2932



화이트데이 콘서트 <재즈&러브>

기간 2026.03.14.(토)
시간 15:00
장소 공주문예회관
문의 041-852-0844



프린세스 캐치! 티니핑

기간 2026.03.14.(토)~15.(일)
시간 11:00, 14:00, 16:30
장소 당진문예의전당 대공연장
문의 1588-7890



<연극> 뚱뚱한 로미오를 사랑한 줄리엣

기간 2026.03.20.(금)~21.(토)
시간 금 19:30/토 15:00
장소 천안예술의전당
문의 1566-0155

자료제공/충남문화관광재단



유권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선거 정보

Q. 저는 이장입니다. 제 친구가 이번에 군수선거에 출마하는데 선거를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장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해 줄 수 있나요?

A. 선거법상 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따라서, 이장이 좋아하는 입후보예정자(후보자)나 정당을 위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하기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위원, 통·리·반의 장 등이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거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2026. 3. 5.)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위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

Q. 잘 아는 지방의원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데요. 가서 책을 무상으로 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반드시 돈을 주고 사야되는지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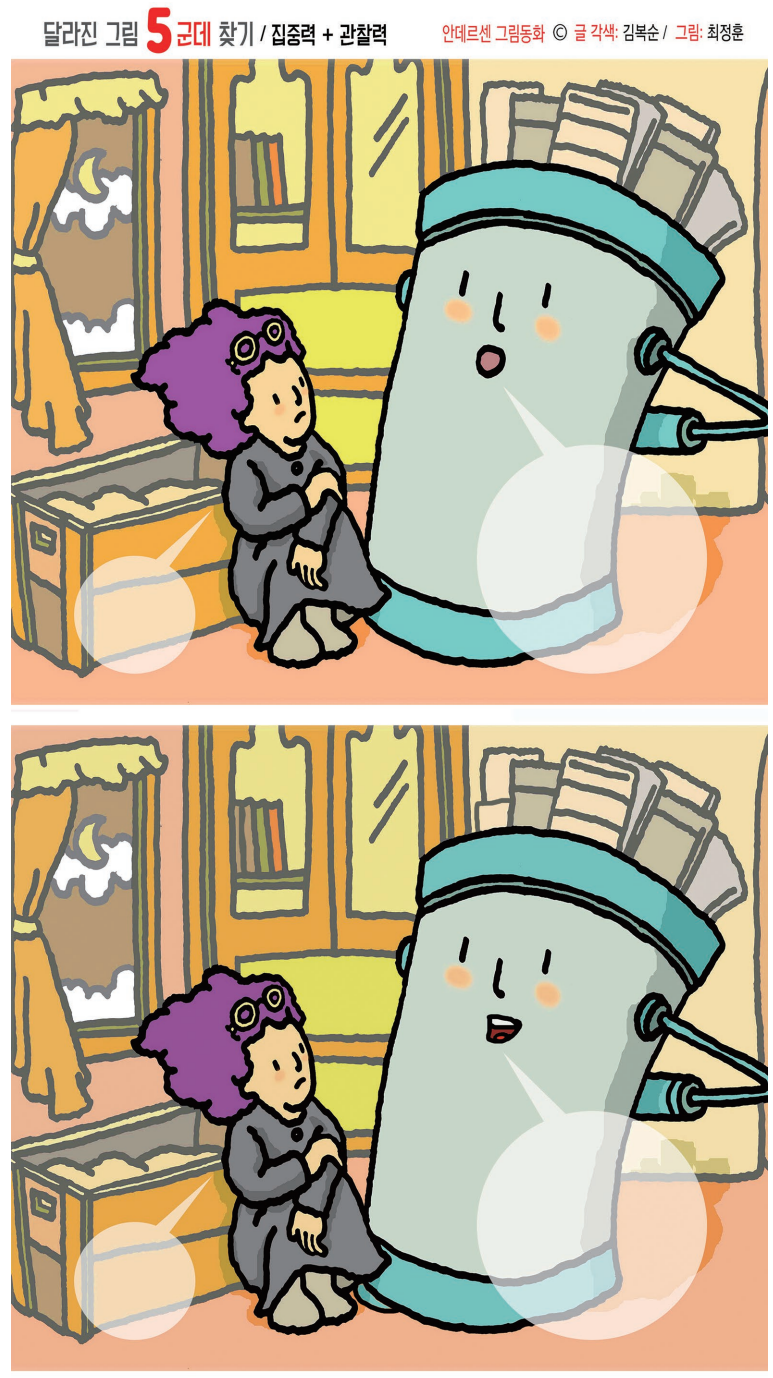
A. 선거법상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됩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여 책을 구입하는 경우, 통상적인 가격(시중가격)을 지불하고 구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출판기념회에서 다량의 책을 구입한 후, 그 책을 주변의 지인 등 선거구민에게 무료 또는 싼값에 제공·판매하는 것 역시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기간(법 제103조제5항)
선거일 전 90일(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2026. 3. 5.)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는 개최가 금지됨.

☎ 선거법 관련 궁금한 사항 등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주세요.

제공/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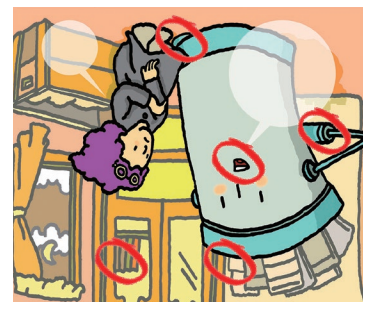
두뇌회전 퀴즈 - 다른그림찾기



"넌 시가 뭔지 알아?"
"시는 신문 귀퉁이에 나오는 그렇고 그런 거야."
물통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으스대며 대답했어요.

〈나만의 이야기 만들기〉
※그림 속 말풍선에 자유롭게 글을 넣어보세요.

© 글 각색: 김복순 / 그림: 최정훈



정답 : 5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

공공의료원 칼럼

고령화 사회가 되며 퇴행성 척추질환 환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보통 60세가 넘으면 척추에도 노화현상이 나타나 척추관절과 인대가 두꺼워져서 척추관을 지나는 신경이 압박을 받아 심한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척추관협착증이 대표적인 질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고령층의 60%가 이 질환으로 고생한다고 한다.

또한 허리 디스크는 나이와 무관하게 젊은 연령층에도 흔한 현대인의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척추질환의 치료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수술을 하지 않고 신경주사나 기타 시술로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료를 많이 하고 있으나 이 방법은 근본적인 치료방법은 아니다.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수술을 하게 되는 데 허리 수술에 부담을 갖는 환자가 많고, 의사의 입장에서도 허리수술은 대단히 큰 수술임에 틀림없다.

학생 때 외과 교수님에게 수업시간에 위대한 외과의사가 되려면 수술 부위를 넓게 해야한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다. 1980년대 초반까지 훌륭한 외과의는 배를 크게 열어 시야를 확실히 확보하는 외과의사라고 배웠다. 당시에는 '위대한 외과의는 절개창이 크다(Great surgeon, great incision)'는 것이 정설이었다. 이러한 생각은 1800년대 후반 현대적 외과 수술이 개발된 이래 지난 100년간 모든 외과의가 공감하는 말이었다. 그러나 수술의 기법을 변화시킨 동력은 다른 곳에서 나왔다. 카메라의 발전과 영상화면의 개발은 배를 절개하지 않고 수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는데, 1986년 시행된 복강경(腹腔鏡) 담낭절제술(쓸개 담석 환자 수술)이 그 첫 예이다. 이러한 수술법은 무릎 수술에도 적용이 되었고 1990년경에는 내시경은 척추 수술에도 적용이 되어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어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다.

지금까지 해 오던 허리 수술은 광범위하게 절개하고 문제가 되는 부위를 찾아 수술하는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수술부위의 피부나 근육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았고, 큰 절개에 따라올 수 있는 출혈, 수술 이후 신경손상이나 근육, 관절 손상 등으로 인한 후유증 때문에 특별히 연세가 높은 환자들에게 척추수술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이유로 척추수술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 환자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의학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피부나 근육, 뼈의 절개를 최소로 하는 미세침습 척추수술이 시도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양 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이다. 이 방법은 근육을 절개하지 않고 허리의 근육 사이에 작은 구멍을 내서 이 구멍 하나에는 내시경 기구를 넣고, 또 다른 한 쪽에는 다양한 수술기구를 사용하여 문제가 되는 병변을 보다 안전하고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수술 방법이다. 기존 한 개의 구멍을 통해 하던 수술의 한계를 넘어 양 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양손을 다 사용하여 한쪽으로는 내시경으로 내부를 크게 확대해서 자세히 볼 수 있고, 다른 한 쪽으로는 수술기구를 좀 더 다양한 각도로 자유롭게 사용함으로 더욱 정밀하고 정확한 수술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특별히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은 환부를 8~10배로 확대하고, 흐르는 물로 세척한 상태에서 선명하고 자세히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수술이 가능하다. 또한 이 수술은 큰 절개를 하지 않고 근육 사이를 벌리고 기구를 넣어서 수술하기 때문에, 허리 근육을 보호하며, 척추의 인대와 근육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병변을 치료하기 때문에 기존의 나사못 유합술 보다 수술 후 유증이 적고 회복이 빨라 일상 복귀가 빠르다.

뿐만 아니라 다 년간의 경험을 통해 전신마취가 아닌 허리 부분마취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적고, 근육을 절개하지 않기 때문에 근육 손상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수술 후 당일 보행이 가능하다, 작은 구멍을 통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출혈이 거의 없어 수혈이 필요 없고 감염 발생율이 적다, 고령자나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들도 안전하게 수술이 가능하다 등의 좋은 점이 많은 것을 확인하였기에 필자 역시 이 수술법을 적극 권유하고 있다.



최 창 명
공주의료원 신경외과장

www.chungnam.go.kr 충청남도청

파나마 에스메랄다 농장의 등장

커피향기

〈18〉게이샤 커피 ②



에스메랄다 농장 입구.


게이샤 커피 나무 가지에 잘 익은 커피 열매가 달려있다.



에스메랄다 농장의 커피 잔.

1930년대에 한 식물학자가 에티오피아의 게샤(Gesha) 지역에서 독특한 맛의 커피를 발견했다. 그 커피는 탄자니아의 식물원에 보관되어 있다가 1953년에 중미 코스타리카에 있는 열대농업연구센터(CATIE)로 보내졌다. 센터는 그 커피에 T2722이란 코드를 부여하고 재배하며 그 나무의 특성을 연구했다.

1960년대에 아프리카에 녹병이 크게 유행하며 커피나무가 죽어나갈 때 중남미의 커피 농장들은 자신들의 땅에도 녹병이 유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녹병에 강한 품종을 찾았다. 파나마의 농장주들이 위의 센터를 찾았을 때 센터의 연구원들은 농장주 들에게 T2722 품종을 추천했다. 그러나 파나마 농부들은 그 품종에 실망했다. 가지가 약해 쉽게 부러지고 단위 당 수확량이 적어 채산이 맞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그 커피나무를 베어내고 더 이상 찾지 않았다.

그런데 2004년 그 품종이 돌연 나타나 세상을 놀라게 했다. 파나마의 동쪽 끝, 코스타리카 국경에서 가까운 지역인 보케테의 한 농장이 게이샤라는 이름으로 첫 출품한 그 품종이 파나마 커피 대회에서 1등을 한 것이다. 전 세계에서 모인 심사관들은 그 커피의 뛰어난 향과 맛에 놀랐고 그들에 의해 게이샤 커피가 전세계에 알려졌다. 그렇게 게이샤 품종, 에스메랄다 농장은 세상을 놀라게 하며 등장했다.

그 후 파나마 등 많은 나라에서 게이샤 재배를 시작했고 소비자들은 그 향긋하며 독특한 맛에 게이샤 커피라면 가격을 불문했다. 지금 그런대로 쓸만한 게이샤 커피는 1킬로 당 10만원 이상을 주어야 구할 수 있는데 이는 보통의 아라비카 품종이 킬로 당 2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사실에 비추어보면 커피 농장주 들이 눈독을 들이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세계 이곳 저곳의 커피 농장이 게이샤 커피 재배를 시작했고 그 결과 시장에 게이샤 커피가 넘쳐나고 있다.



그러나 옷과 장신구의 명품이 있듯이 게이샤 커피의 명품은 여전히 에스메랄다 농장에서 나온다. 작년 여름의 '베스트 오브 파나마' 맛 평가에서 98점을 얻어 20키로 한 푸대를 60만불에 판매하지 않았던가?

그들은 어떻게 명품 게이샤 커피를 만드는 것일까? 그들의 농장이 위치한 지역의 토양과 기후, 고도도 뛰어나다. 그러나 그들의 농장만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니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지난번 경매에서 역사를 새로 쓴 커피는 냉장이 되는 스텐통에서 2일간 발효시킨 후 노천에서 8일간 건조했는데 이때 직사광이 아닌 반사광을 받게 했다고 한다. 또한 탈각 후 크기, 무게, 색깔 별로 선별하도록 하는 공정을 거쳤다고 한다. 그들에게는 커피 재배 기술, 그리고 수확 후 정제 기술, 그리고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자본력이 있다. 그 모든 것을 갖춘 농장은 참으로 드물다. 20년 전 명품 게이샤로 초일류의 자리에 오른 이 농장이 한동안 그 위상을 지킬 것으로 보인다.





/최명돈 용연공방 대표(로스터)



해무(바다안개, 海霧)란?

알기쉬운 기상용어

해무는 대기온도와 해양의 수온 차이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데, 따뜻한(차가운) 해면의 공기가 차가운(따뜻한) 해면으로 이동 할 때 해면부근의 공기가 냉각되어 발생하는 안개로 해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양 위험기상현상 중 하나입니다.

해무가 발생하면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짧아져 조업이나 선박 운항에 주의해야하고, 지속시간이 길어지기도 하며, 내륙으로 유입되기도 합니다.




선박 충돌 · 화재 (AI 이미지)


선박 좌초 (AI 이미지)

해양위험기상 발생 정보, 음성으로 들으세요

기상청 날씨누리집, 날씨알리미앱, 방재기상플랫폼 등을 통해 제공되던 위험기상 정보를 해상에서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요.



대전지방기상청

충청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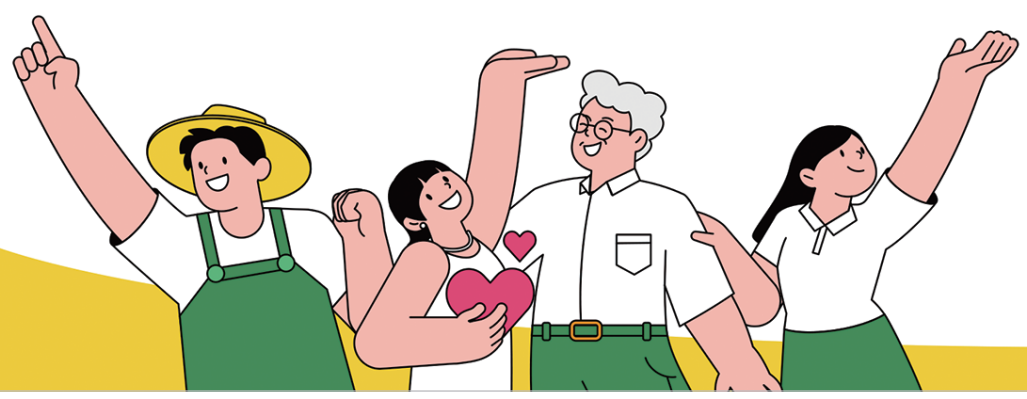
일자리부터 소상공인까지!

QR코드로 바로 확인하는 충남 일자리·경제 지원 정보

QR코드 인식하는 방법!



1.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 실행하기
2. 카메라 중앙에 QR코드 맞추기
3. 링크가 나타나면 터치하기!
4. 웹페이지로 이동하기



시·군 일자리 정보

충남 15개 시군의 구인·구직 정보를 한눈에

문의.
041-404-1421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경영애로상담, 자금지원, 창업보육, 판로지원, 고용지원 등

문의.
041-424-4000
보부상콜센터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노인 일자리·사업장 소개, 사회활동 참여자 모집 등

문의.
041-404-1448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신중년 맞춤형 취·창업 지원, 전문강사 양성, 커뮤니티 지원 등

문의.
041-404-1371~2

KOR 충청남도청 www.chungnam.go.kr

8년 만에 얻은 아이의 행복 위해 귀농

충남 청년농부가 간다

첫걸음 딸기농장 대표 김태우·정경수씨 부부

도시생활보다 농촌이 좋아…아이에 초점
"안심하고 바로 먹는 딸기"…가족농 꿈꿔



직접 재배한 딸기를 소개하는 김태우·정경수(오른쪽)씨 부부.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귀농을 결심하고 충남 서산에 정착했다. 귀농 이후 "행복하다"는 아이의 말 한마디가 엄마·아빠의 선택에 힘을 더한다.

서산시 해미읍에서 '첫걸음 딸기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태우·정경수씨 부부를 만났다.

농장은 1000평 규모로 재배동 3동 육묘장 1동을 갖추고 있으며, 아이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딸기 재배에 집중하고 있다.

김태우·정경수씨 부부는 2017년부터 귀농을 계획하고, 작물은 단기간에 비교적 적은 면적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딸기로 정했다.



2021년부터 농업기술센터 교육을 받으며 준비 과정을 거쳐 2023년 귀농했다.

농장 이름 역시 아이 첫걸음의 소중한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 '첫걸음 농장'으로 지었다.

정씨는 "농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길이었어요. 경기도 수원에서 자라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며 네일아티스트로도 일했어요. 결혼 후에는 일과 가정 모두 놓치고 싶지 않아 정말 바쁘게 지냈어요"라고 했다.

귀농 이유를 묻자 "결혼 8년 만에 아이가 생기면서 삶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며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해 남편과 상의해 귀농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서산에 정착한 배경에 대해 "수도권과 접근성이 좋고 교통·의료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곳에 터를 잡았다. 남편과 아버지 고향이 서산이라는 것도 마음에 들었다"고 답했다.

현재 생산된 딸기는 경매장에 출하하고 있다. 아이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로 한 것인데, 향후 온라인 판매 등 판로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어려움에 대해선 "처음 왔을 땐 커피 한 잔을 마음대로 마시기 어려운 환경이 낯설었어요. 농장 앞은 카페가 아닌 논밭이고, 시내에 가려면 마음을 먹어야 했어요. 그래도 낮에는 아이가 뛰어놀고 밤에는 별도 볼 수 있는 자연의 편안함에 우리 가족에게 여유가 생겼어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들이 워낙 뛰어노는 것을 좋아한다. 귀농 전 아파트에 살았는데 '뛰면 안돼'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이곳에 온 이후 아이가 아파트로 다시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라며 "아이가 농장에서 딸기를 따 먹고 즐겁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며 귀농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라고 덧붙였다.

당도 높고 단단한 딸기 생산을 위해 다른 농가를 참고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등 공부와 노력도 멈추지 않고 있다.

김태우·정경수씨 부부는 "농부의 삶에 만족하고 있어 아이가 자라 농사를 짓겠다고 한다면 지지할 생각이다. 그동안 쌓은 경험과 농업기술을 전해주고싶다"며 "귀농을 하면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이 늘었고 행복은 배로 커졌다. 자연의 소중함도 알게 된 것도 큰 변화다. 어느새 서산은 낯선 공간이 아닌 우리 가족의 터전이고 울타리가 됐다"고 말했다.

/김정원 jwkim87@korea.kr

당진시청어린이집 '색색의 마음' 교육부장관상

부모·아이·지역 잇는 보육 프로그램



당진시청어린이집이 1월 20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주최한 '우수보육 프로그램 공모전'에서 교육부장관상을 받았다. 〈사진〉

전국 약 1300여 개 직장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우수 보육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행사로, 당진시청어린이집은 '색색의 마음·부모와 아이 그리고 지역을 잇다' 프로그램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4~9월 물감을 활용한 놀이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부모와 지역사회까지 참여 범위를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프로그램의 핵심인 지난해 8월 부모 참여 물감놀이에 대해 조은실 원장은 "키즈노트나 SNS 기록을 위해 교사들이 놀이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현실이 고민이었다"며 "이를 해소하고 동시에 부모님들이 사진으로만 보던 아이들의 행복한 순간을 현장에서 느끼게 하고 싶었다"고 기획 배경을 설명했다.

사전 준비 단계부터 아이들이 직접 부모에게 보낼 초대장과 현수막을 제작하고 놀이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거쳤다. 행사 당일에는 학부모와 함께 어린이집 앞 잔디밭에서 비누거품 놀이, 황토 놀이, 어린이집 버스 페인팅 등 다양한 물감놀이가 펼쳐졌다.

조은실 원장은 "부모와 아이, 교사,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해 이뤄낸 결과"라고 말했다. /당진시대 이태경 기자

공주시니어클럽, 설 명절 어르신 특식 제공

무료경로식당 '춘수정'서



노인일자리전담기관 공주시니어클럽은 2월 12일 무료경로식당 '춘수정'에서 설 명절을 맞아 어르신들을 위한 명절 특식을 제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무료경로식당 '춘수정'은 평소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균형잡힌 식사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돌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진〉

이날 '시니어 종이팩 재활용 사업단'에서 우유팩을 세척하여 교환한 휴지 30롤과, 우동 밀키트를 정성껏 마련해 어르신들께 대접했으며, 공주시청 경로장애인과도 참석해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더했다.

어르신들은 "명절 분위기를 오랜만에 느낄 수 있어 감사하다"며 환한 웃음으로 화답했고, 식당 안은 정겨운 인사와 덕담으로 가득찼다.

공주시청 경로장애인과 지형인 과장은 "어르신들을 위해 행사를 준비해 주신 공주시니어클럽에 감사 드린다"며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금강뉴스 신용희 기자



원주민·이주민 서로 존중하는 마을

태안 소원면 신덕2리
차별없이 65가구 오순도순

원주민들과의 갈등으로 귀농귀촌인이 다시 도시로 유턴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가운데 원주민과 이주민들이 한데 어우러져 타의 모범이 되는 마을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

태안군 소원면 신덕2리 마을은 가재선 이장을 중심으로 원주민과 이주민이 갈등 없이 차별화 없는 평안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신덕2리 마을은 현재 65가구가 오순도순 모여 살고 있다.

이중 이주민이 원주민과의 비율이 비슷할 정도로 많은 이주민들이 정착해 생활하고 있다.

원주민인 김기섭 씨의 경우 외지에 살고 있지만 고향 신덕2리에 거주하고 있는 모친을 살피고자 매 주말이면 고향집을 찾는다. 이같은 효심에 더해 김 씨는 지난 수년간 마을발전기금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이에 가재선 이장은 김 씨의 선행을 상으로 보답하고자 모친인 심순택(88) 씨를 추천, 지난 3일 '장한 어머니' 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신덕2리 마을에서는 노인정에서 마을주민들이 한데 모여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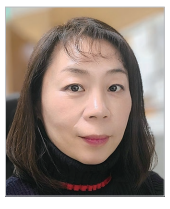
신덕2리 주민 문인자 씨는 "우리마을은 넉넉하지 않지만, 원주민과 이주민이 차별 없이 서로를 존중하며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다"면서 "마을지킴이인 이장님과 심용진 노인회장님, 임미정 부녀회장님과 도움을 주는 주민들이 계시기에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다.

/태안신문 이민령 기자

충청남도청 www.chungnam.go.kr

달 신앙과 달의 과학, 그 경계에 선 우리

내포칼럼



이 은 미
방송작가

달에 대한 노래로 우리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곡이라면 윤석중 작사, 권길상 작곡의 동요 '달'일 것이다. '달 달 무슨 달 쟁반 같이 둥근 달..'로 시작하는 바로 그 노래 말이다. 이 노래 외에도 달은 수많은 노래와 시, 소설 같은 문학작품 등 여러 예술작품의 소재로 쓰이는, 우리에게 특별한 감흥을 주는 존재다. 너무 강렬해서 쳐다볼 수 없는 햇빛과 달리 은은한 달빛은 부드러우면서도 신비로운데, 그런 달이 차고 기우는 모습은 오랜 옛날부터 달을 신앙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특히 휘영청 밝은 보름달은 완벽한 구(球)의 형태여서 보고만 있어도 절로 마음과 손이 모아지게 됐을 것이다. 신라의 일월제(日月祭)나 연오랑세오녀 이야기 같은 달 신앙의 자취가 수많은 고서와 설화에 남아있는 이유다.

그런데, 농경 사회에서 풍요와 수확의 상징으로 쓰인 보름달은 광기와 불안정함의 상징으로도 쓰였다. 관련된 미신이 세계 곳곳에서 확인되기도 하는데, 보름달이 뜨는 날 늑대인간이나 흡혈귀가 나타난다는 중세 괴담은 소설과 영화에 등장할 정도로 널리 퍼진 이야기다. 그런가 하면 옛사람들은 달의 주기에 따라 인간의 정신 상태도 변한다고 여겼다. 'lunatic(광인)'이라는 단어가 라틴어 'luna(달)'에서 유래한 것만 봐도 그런 믿음을 알 수 있다. 보름달이 뜨는 날 범죄율과 사고율이 높아진다는 현대 미신도 있고, 지난 2016년에는 미국 전역의 병원 의료진 사이에서 보름달이 뜰 때 응급실과 분만실에 환자가 몰려든다는 얘기가 퍼져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하기도 했다. 달빛이 인간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음에도 21세기인 요즘도 달에 대한 미신이 여전한 걸 보면 달에 대한 오랜 믿음과 문화적 힘이 강력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영향력과는 별개로 달은 지구에 사는 거의 모든 동식물에게 또 다른 막대한 영향을 주는 존재기도 하다. 조수 간만의 차를 비롯해서 지구 자전축의 안정성에도 도움을 주는 천체가 달이기 때문이다.

달은 지구의 유일한 위성으로, 그 기원에 대한 다양한 가설이 존재하는데,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게 '거대충돌설'이다. 거대충돌설은 45억년 전 초기 지구와 화성 크기의 천체인 '테이아'가 충돌했고, 그 충돌로 생긴 파편들이 합쳐져 달이 됐다는 가설이다. 이 거대충돌이 없었다면 지구의 원소 구성이나 궤도도 지금과 달랐을 것이고, 크기 역시 달랐을 거라고 한다. 물론 지구 곁에 달처럼 커다란 위성도 없었을 것이다.

> **달에 대한 미신과 상징, 과학·문화 이야기**
> **올해 정월 대보름, 개기월식으로 더 특별해**

달은 지구에서 약 38만 5천km 떨어져 있다. 지구를 제외한 태양계 모든 행성들을 지구와 달 사이에 줄 세우고도 남을 만큼 먼 거리인데, 우리 마음속 달은 그렇게 먼 존재가 아닌 듯하다. 달의 변화를 보며 날이 가고 달이 바뀌는 걸 알았고, 보름달이 뜨는 밤엔 집 밖으로 나와 함께 노래하고 춤을 추기도 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랜 축제들은 보름달이 뜨는 날 행해진 경우가 많았는데, 우리에겐 정월 대보름과 한가위가 그런 축제다. 음력 새해의 첫 보름달이 뜨는 정월 대보름에는 지역마다 다양한 행사가 열렸는데, 서산시 옥녀 산신제, 태안군 용왕제, 아산시 외암마을 장승제 등이 지역의 전통 행사들이고, 이외에도 크고 작은 대보름 행사들이 곳곳에 예정돼 있다. 전통적으로 정월 대보름은 한 해 농사가 시작되는 시기여서 아주 큰 명절로 여겨졌다. 대보름날 자정을 전후로 마을의 평안을 비는 동제를 지냈고, 오곡밥과 부럼, 묵은 나물 같은 절식도 만들어 먹었다. 또 달맞이와 달집태우기, 지신밟기와 쥐불놀이 같은 놀이를 하면서 한 해의 복과 운을 빌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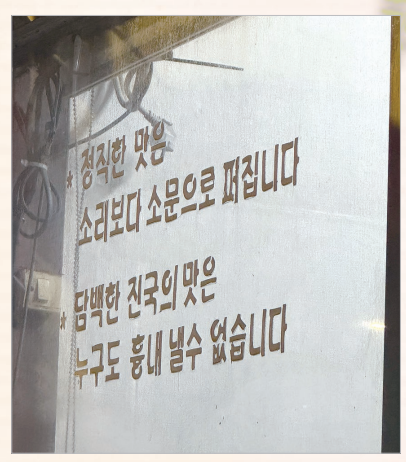
올해 정월 대보름에는 보름달이 지구 그림자에 가려지는 개기월식이 나타난다고 한다. 달이 지구 그림자에 가려지는 개기월식 덕분에 올해는 특히 달이 붉게 보이는 레드문 현상도 볼 수 있다.

달에 대한 신앙과 서양의 공포 전설, 달맞이 축제와 예술 속 달빛 묘사까지, 단순한 천체를 넘어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상징으로 우리 곁에 있는 달. 그 달이 가장 크고 밝게 빛나는 보름이 머지않았다. 어느 해보다 특별할 거라는 이번 정월 대보름, 그러니 올해의 복과 운을 미리 빌어봐야겠다. 붉게, 또 둥글게 차오르는 달을 기다리면서.

김민지 시인의 산책 편지



진국과 오짓물



사람의 매력은 어디에서 묻어날까요? 순전히 잘난 모습에서 묻어나는 건 아닌 듯해요. 경험상 사람의 매력은 못난 모습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모습에서 느껴졌던 것이었어요. 태는 나되 티는 내지 않는 모습이랄까.

그저 묵묵한 자신감. 스스로 잘 여문 사람을 좋아합니다. 떠들썩한 법 없이 생색내는 법 없이 조용히 할 일을 해나가는 사람을 발견할 때의 알 수 없는 뿌듯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다 하고도 표를 내지 않은 탓에 제 몫을 잘 챙기지 못하는 모습에 안타까움이 일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조금 하고도 전부 해낸 것처럼 의기양양한 사람 주변에 있을 때는 제 일인 것처럼 속이 상하기도 하고요.

거짓이 없이 참된 것. 또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을 어느 국밥집을 지나며 보게 되었습니다. "진국"이다!

오랜만에 본 진국이라는 단어에 몇몇 사람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진국 같은 사람을 한 명 이상 떠올릴 수 있는 걸 보니 제 인생 참 든든하다 싶었어요. 좋은 사람들을 만난 인생. 이렇듯 후한 인생 사는 건 정말이지 복이니까요.

주변에 진국 같은 사람들은 저마다 뚝배기 같은 마음 그릇을 가지고 있어 금세 진심을 뚝딱 끓여내는 힘이 있어요. 꾸준히 한소끔 한소끔 끓여낸 진심으로 오래 그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들. 그 비결을 물을 순 있지만 따라서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흉내 내기가 쉽지 않은 그 마음을 잘 받아두었다가 어설프게나마 조금씩 계속해서 반복해 보는 일만이 능사입니다. 일정한 온도로 일정한 맛을 지치지 않고 내는 일.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도 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마치 맛으로 정평난 노포 국밥집처럼요.

같은 레시피를 참고해도 저마다 다른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오차 없이 판에 찍어낸 듯한 맛을 낼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손맛이라면, 그 손맛은 타고난 다정함일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정말로 혼자 타고날 수 있는 건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아요.

보고 자란 것. 보고 느낀 것. 그 앞에 "알게 모르게"라는 말을 붙여 둡니다. 알게 모르게 보고 자란 것. 알게 모르게 보고 느낀 것.

쇼하듯이 보여주지 않아도 그 주변을 타고 흐르는 공기 같은 것들도 어떠한 마음의 기류를 형성하는 게 이치라서. 알게 모르게 다정한 기류에서 지낸 사람은 공공연하게 다정한 사람으로서 자기 주변을 또 알게 모르게 살려내는 마법을 부립니다.

사람이 부릴 줄 아는 게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감싸는 공기라면 얼마나 근사할까요. 그 근사함을 잃고 뚝배기를 깨버리는 일이 없도록. 나 한 사람 마음 그릇을 잘 닦고 말려두는 일에 게으름을 부려서 안 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뚝배기는 오지그릇의 일종입니다. 오짓물을 발라 구워낸 그릇이라는 건데요. 오짓물은 흙으로 만든 그릇에 바르는 잿물로, 윤이 나는 데 쓰이는 자연 유약입니다. 삶의 오짓물을 구석구석 발라 윤이 나도록 구워 만든 마음 그릇 하나. 그 바닥을 긁어 깨끗하게 비울 누군가를 기다리며 오늘도 재료 준비를 해보면 어떨까요? 소박하면서 생생한 것들로 꼼꼼히.

반려동물 보호자의 필수 상식

재미있는 동물사전

구토와 역출



역출 구토

※ **보호자분들이 쉽게 구분하는 방법**
· **역출 가능성** - 음식 형태가 그대로
· **구토 가능성** - 이미 소화되어 음식 구분이 어렵다

저는 중·노령의 중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수의사입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보호자분들께서 자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일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멀쩡했어요."'한 번도 아픈 적 없는, 아주 건강한 아이였어요."

하지만 잘 먹고, 잘 놀고, 겉으로 보기에 활력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질병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동물은 본능적으로 아픈 것을 숨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호자가 이상을 느낄 정도가 되었을 때는 이미 질병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보호자분들께서 평소 반려동물의 몸 상태와 이상 신호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자분들이 가장 흔히 겪고, 또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증상인 '구토'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구토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위장관 질환, 간·신장 질환, 췌장 질환, 호르몬 질환 등 전신 질환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반복되거나 심한 구토는 단순 소화 문제로 넘기기 어렵습니다.

입을 통해 내용물이 다시 나왔을 때 보호자분들은 모두 구토라고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구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출이라는 증상도 있기 때문에 구별이 필요합니다.

▶구토 (Vomiting)는
-위 또는 십이지장에서 내용물이 능동적으로 배출되는 현상
-침을 많이 흘리거나, 구역질을 반복하는 모습이 선행됨
-복부에 힘을 주는 모습이 보임
-노란색 또는 녹색의 담즙이 섞여 나오는 경우가 많음
-이미 소화가 진행되어 원래 음식 형태를 구별하기 어려움

구토는 비교적 질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빠른 진료가 필요합니다.

▶역출 (Regurgitation)은
-인두 또는 식도에서 내용물이 수동적으로 배출되는 현상
-구역질이나 복부 힘주기 없이 갑자기 '툭' 하고 나옴
-침흘림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먹은 음식이 거의 소화되지 않은 형태로 그대로 나옴

증상들이 반복된다면 식도 질환 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병원 진료가 필요합니다. 집에서는 구토와 역출 모두 물을 먹여주시면 탈수를 줄일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안대기 수의사
(천안 스카이동물메티컬센터 원장)

충청남도청 www.chungnam.go.kr

‘통합특별시 권한 강화 요구’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처리
의회독립성 보장 등 법률안 수정·보완 촉구



충남도의회는 2월 19일 제364회 임시회를 열고 충남대전행정통합 관련 긴급 안건을 심의했다.

충남도의회는 2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가결된 ‘충남대전행정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긴급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2월 19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도의회는 제364회 임시회를 열어 충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처리하고, 김옥수 의원(서산)이 대표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의 지방재정권 등 통합특별시 권한 강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견 청취의 건은 국회 행안위가 가결한 ‘대안’에 대해 충남도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도의회는 대안으로의 행정통합은 반대한다는 의견으로 의결하였다. 또한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통합특별시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통합법률안을 수정 보완하여 심의할 것을 촉구했다.

홍성현 의장(천안1)은 “충남과 대전이 통합 논의를 시작했던 건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며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충청권의 바람과 요구 대신, 국회 통과와 정부 부처의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알맹이가 빠진 대안을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별시의회가 집행부와 대등하게 소통하기 위한 예산권과 조직권 등 의회 독립성 보장은 지방자치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충남도의회는 제대로 된 통합, 도민이 주인이 되는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도민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집행부, 국회와 치열하게 소통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모임

청년수산인 정책 대응 역량 강화

신영호 의원 연구모임



충남도의회 ‘충남 청년수산인연합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대표 신영호)’은 2월 23일 충청남도의회에서 발족식과 제1차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계획과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사진〉

연구모임은 신영호 의원(서천2)이 대표를, 충남수산자원연구소 김태현 주무관이 간사를 맡았다. 구성원으로는 편삼범 의원(보령2)을 비롯해 충남 청년수산인연합회 신명식 회장, 이성행·김보균 부회장, 진창훈 사무국장과 나혜훈(보령)·박태욱(서산)·신경식(서천)·전의수(홍성)·오윤석(태안) 지회장, 한성오 한결수산 대표 등 총 13명이 참여했다.

신영호 의원은 “행정과의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단위 조직화를 통해 청년수산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정책 대응 역량을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모임은 충남 청년수산인의 역할 확대를 통해 어촌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6년도 상반기 의회운영 기본계획

▶회기 : 4회 46일(정례회 1회 13일, 임시회 3회 33일)

* 예비일수 : 94일

회기별	기간	주요안건	비고
제363회 임시회	1. 20.(화)~2. 3.(화) (15일간) ※ 본회의2, 위원회9, 공휴일4	● 2026 주요업무 계획 보고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포함) ● 교섭단체 대표연설 ●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 조례 제·개정안 등 처리	· 신정(1.1.)
제364회 임시회	2. 19.(목) (1일간)	● 결의안 등 처리	· 설 연휴 (2.16.~18.)
제365회 임시회	3. 24.(화)~4. 9.(목) (17일간) ※ 본회의4, 위원회9, 공휴일4	●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조례 제·개정안 등 처리	· 삼일절(3.1.) · 정월대보름 (3.3.) · 결산검사 (4.10.~4.29.) ·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4.25.~5.24.)
제366회 정례회	6. 10(수)~6. 22(월) (13일간) ※ 본회의2, 위원회7, 공휴일4	●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 조례 제·개정안 등 처리	· 지방선거(6.3.) · 현충일(6.6.)



정부와 국회는 껍데기뿐인 특별법안 전면 보완하고, 실질적 '재정·행정권한' 보장 하라!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 실질적 권한 강화 촉구

충남도의회는 2월 19일 긴급 소집된 제364회 임시회에서 김옥수 의원(서산1)이 대표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의 지방재정권 등 통합특별시 권한 강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특별법안이 선언적 지원 규정 중심으로 구성돼 통합특별시의 실질적 권한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국회는 특별법 심의 과정에서 지방재정권 이양을 명문화하고 자치권을 대폭 강화하도록 법안을 전면 보완할 것 ▲정부는 중앙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전향적인 사무 이양과 제도적 장치 마련에 용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정토론회

'계룡교육지원청 신설' 논의 본격화

이재운 의원 의정토론회



충남도의회는 2월 11일 계룡문화예술의전당 다목적홀에서 '계룡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열고, 계룡시 교육행정 체계의 구조적 한계와 독립 교육지원청 신설의 필요성,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사진〉

이번 토론회는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이재운 의원(계룡)이 좌장을 맡았으며, 충남연구원, 교육계·법학 분야 전문가, 학부모, 관계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

이재운 의원은 "계룡교육지원청 신설은 단순한 행정조직 확대가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을 어떤 체계 속에서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며 "인구도 늘고 제도적 근거도 마련된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실행의 과제"라고 당부했다.

이어 "계룡교육지원청 신설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도의회 차원에서 충남교육청과 계룡시가 책임 있게 나서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문화복지도시 조성 방안 모색

이현숙 의원 의정토론회



충남도의회는 2월 11일 천안시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웰니스 기반 문화복지도시 조성 방안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토론회는 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비례)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박성기 유원대학교 문화복지융합학부 석좌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나태종 충남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 김창현 중원대학교 명예교수, 이도윤 보드아리아협동조합 이사장, 김옥선 충청남도 복지정책팀장, 조상연 충청남도 문화산업팀장이 참여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웰니스 문화복지도시의 정책적 개념과 실천 가능성, 문화·복지·보건·도시 정책 연계 방안, 충청남도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모델 구축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현숙 의원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기존 복지 체계만으로는 도민의 삶의 질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며 "웰니스 기반 문화복지융합은 제도와 정책으로 구현돼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가
가까운 곳에서 도민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양방향 소통을 위한 현장창구!
의정활동 자료 수집의 장!
지역발전을 논의하는 테이블!
스마트 원격 사무공간!

충청남도의회 CHUNGCHEONGNAM-DO COUNCIL

지역민원상담소 현황

천안1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15, 3층	041-554-0008	논산2	논산시 연무읍 연무로 181, 1층	041-741-0664
천안2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 145, 401호	041-566-3702	계룡	계룡시 서금암로 17, 2층	042-840-5719
천안3	천안시 서북구 미라 16길 14	041-574-0007	당진	당진시 시청2로 18, 2층	041-358-3250
공주	공주시 백미고을길 17-12, 2층	041-855-2242	금산	금산군 금산읍 후곤천길 53, 2층	041-751-5555
보령	보령시 한내로터리길 45, 2층	041-936-5388	부여	부여군 부여읍 부장대로 28, 2층	041-835-3330
아산1	아산시 외암로 1544-3, 2층	041-547-5927	서천	서천군 서천로 157-1, 2층	041-952-1650
아산2	아산시 영인면 고균길 2, 2층	041-546-1101	청양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 4길 37, 301호	041-943-0613
서산1	서산시 고운로 153, 2층	041-665-1235	홍성	홍성군 홍성읍 도청대로 132 C동 201호	041-633-2333
서산2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1790 태성빌딩 2층	041-662-1237	예산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1길 20, 6층	041-333-9606
논산1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8, 2층	041-734-0064	태안	태안군 태안읍 후곡로 61, 1층	041-675-0313

※각 지역별 상담소의 운영시간은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 ▶ 참여마당 ▶ 지역민원상담소 ▶ 지역민원상담소 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자 음성변환 바코드 '보이스아이'
스마트폰 구글스토어 및 앱스토어에서 '보이스아이'를
검색하여 앱을 다운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